

#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의 실용적인 문제

서 덕 현\*

## <차 례>

1. 머리말
2.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 2.1. 직접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 2.2. 간접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3.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 3.1. 직접 인용 표지 및 부호
  - 3.2. 간접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4.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의 실용적인 문제
  - 4.1. 구어(입말)의 인용 표지
  - 4.2. 문어(글말)의 인용 표지와 및 인용 부호
5.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는 생각을 나타내거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나 글에서 흔히 인용을 사용한다. 그런데 오늘날 수사법의 하나인 인용법에 대하여 그 표현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쓰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법적으로 볼 때 국어에서 인용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

구어이든 문어이든 간에 소위 인용격 조사라고 하는 인용 표지와 인

---

\*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seodh21c@hanmir.com)

용 부호가 분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어 현실이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서 특히 인용절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구분되어야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되겠는데, 혼란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음의 모 일간 신문 기사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그는 옛날부터 “글 쓴다”라는 말을 안 했단다. 그냥 “일한다”라고 했다. 그 어떤 글보다 “한줌의 흙을 살찌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도리어 편해지는 사람이다.(문화일보 2001년 7월 19일 목요일 23면 <박경리씨의 하루>)

말하는 사람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선별 의식이 약하거나 그런 의식이 없어서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교육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겠고, 실제로 선별하여 쓰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서라면 이 또한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규범 문법에서 인용 표지는 어떠한지 과거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찾아 보아야 한다. 학문적으로 인용 표지에 대한 연구는 학위 논문이 나온 정도의 연구 성과가 있다. 다만 인용 부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는 해도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관습이 있으니까, 역시 과거 문법 교과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용의 정의와 그 표지 및 부호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간략하게 고찰하고, 과거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구어와 문어에서 어떤 근거로 현재의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살펴 보고, 이들의 용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1세기는 언어의 약육강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리라고 본다. 강력한 언어만이 살아남게 되리란다. 다른 나라의 언어 문제가 아니다. 바로 국어가 처한 현실 상황이 위태롭기에 하는 말이다. 국어의 전통 어법을 계승하여 바르게 세우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2.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인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남의 말을 따옴’ 정도로 생각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는 언어의 형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의로 생각된다. 그러면 몇몇 인용에 대한 정의를 아래에 제시한다.

‘남의 말을 그대로 따옴’(최현배, 1980:631)

‘앞선 때의 남 또는 자기 자신의 말(입말이나 글말 포함)이나 생각과 어떤 특수한 상황<sup>1)</sup>을 가져와 전달하는 것’(김수태, 1988:21)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생각을 끌어오는 것’(허용, 1975:44,743)

‘언어 형식을 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필영, 1995:12)

이상의 정의에서 살펴 보면 대체로 ‘말’이나 ‘말’과 ‘생각’을 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말’은 외현적인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각’은 이필영(1995:15-16)에서 밝혔듯이 추상적 문장으로 바뀌어 심리적인 언어형식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관념’ 자체를 끌어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용에서 표현 대상은 내적으로 표현된 말이든 구체적인 음성으로써 표현된 말이든 ‘말’인 것이다.

### 2.1. 직접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직접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에 대하여 일부 문법 학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최현배(1980)는 ‘직접 인용(直接引用)[바로 따옴]을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바로 따옴’으로 풀이한다. 인용 표지로서 그 풀이씨[용언] 뒤에 쓰이는 따옴 토씨[인용 조사]는 ‘라고’와 간접 인용[전너 따옴]에도 쓰이는

1) 김수태(1988), pp.290-291. 상황 그 자체를 가져와 인용하는 인용문. 의성어나 의태어에 의함.

‘고’<sup>2)</sup> 두 가지의 조사를 든다. 바로 따옴[直接引用]에는 인용 부호를 쌍 따옴표를 써서 에우게 한다. 그런데 따옴표를 쓰는 경우에는 온점이나 반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따옴표 속에 두라고 한다.<sup>3)</sup>

남기심(1971)은 직접 인용문은 피인용문의 화자가 말한, 원형 그대로의 문장을 제 삼자에게 전달하는 인용문을 말한다고 한다. 인용 표지로서 직접 인용토는 ‘-(이)라고’와 ‘-하고’를 든다. 이들의 변별적 사용은 후속하는 인용 동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라고’가 취해지는 경우는 피인용문이 그 화자가 말한 원형 그대로임을 강조하여 전달하려는데 중점이 주어졌을 경우인 것으로 생각된다<sup>4)</sup>는 것이다. 인용 부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그 지문에 제시된 피인용문이 직접 인용인 경우에 큰따옴표(“ ”)를 쓴다. 다만 남기심(1970:15)에서 직접 인용의 지칭어<sup>5)</sup>에는 인용 부호(“ ”)를 붙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따옴표 속의 마침표는 의문문인 경우에만 ‘?’를 쓰고 그 밖에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 감탄문 등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후술하겠지만 큰

2) 최현배(1980), p.612. “나도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바로) 저도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건너)

3) 최현배(1980), p.891. 참조.

4) 남기심(1971), p.225.

5) 남기심(1970:11-15)에서 소위 지칭인용문이라는 인용문을 대략 (a), (b)와 같은 구조의 것을 제시한다.

(a) 체언(주체격)[+체언(목적격)] + 체언(지칭어) + (이)라고 + 인용동사  
\*단, 체언(지칭어) = 고유명사 예)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b) 체언(주어) + 체언(형)(목적격) + 체언(지칭어) + (이)라고 + 인용동사  
예) 그는 콩을 “팥”이라고 한다.

위의 (a)형 문장과(b)형 문장은 그 지칭어가 인용토 ‘-(이)라고’를 취하므로 다음 ㄱ의 문장처럼 직접 인용문이라는 것이다.

ㄱ. 철수는 “개나리가 피었네”라고 했다.

여기서 참고로 할 것은 남기심은 구조면에서 (a)형의 지칭어는 주체에 대한 설명어의 지칭어로, (b)형의 지칭어는 보충어로서의 지칭어로 본다. 그가 예로 든, 다음 ㄴ의 문장은 간접 인용문이다.

ㄴ. 그는 고래가 표류동물이라고 했다.

위의 ㄴ의 ‘-이라’는 소위 지정사[서술격 조사]이고, ‘-고’가 간접 인용토라는 것이다.

따옴표의 사용이 혼란스러운 표기에서는 문장이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현배(1980)에서 보면 일찍이 따옴표 속의 문장 부호에 대한 기술이 있었으나 그것이 일반화되어 엄격하게 지켜진 것 같지 않다.

이필영(1995)은 직접 인용은 내용보다 본래의 언어형식 그 자체만을 중시하여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원발화자의 생각(관념)을 담을 수 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직접인용은 발화나 발성, 단어의 음성 형식 등 어떠한 단위의 언어형식이든지 간에 물리적 음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그는 직접인용의 대상 중에서 직접인용절이란 하나의 문장으로 된 말을 직접인용한 것만을 가리킨다. 이것은 최현배(1980)의 직접인용 대상으로 문을 거론한 것이나 남기심(1971)의 직접 인용문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이필영(1995)은 직접인용의 대상을 넓혀 제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는 동서에서 인용 표지는 직접인용구문에서는, '0'와 '하고'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언어형식이 발화/발성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이라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언어형식이 발화/발성된 결과 또는 표기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아무튼 직접인용표지는 대체로 '하고'와 '이라고'를 든다. 직접인용절 뒤에 인용표지 '고'가 나타나면 상위동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약간 어색하다고 한다.<sup>7)</sup> 인용 부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제로 남긴다. 그는 편의상 큰따옴표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이 내는 데에 사용했고, 작은따옴표는 그 밖의 경우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6) 이필영(1995)에서 직접인용 대상으로서 '문장' 밖의 것으로 든 예들로서 王, 3, + 등과 같이 언어형식을 취할 수 있다면 문자나 숫자, 심지어는 부호마저도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7) 이필영(1995), p.39. '고'가 직접인용절보다 간접인용절에 더 잘 쓰이는 이유는 간접인용절의 '고'는 상위동사 '하고'로부터 융합되어 생성된 것인 데 반하여, 직접인용절의 '고'는 '하고'가 임시로 축약된 것으로서 그것도 특정한 축약조건(곧 인용절의 종결어미 'ㅏ'로 끝남) 아래서만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접 인용절의 큰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암묵적으로 따옴표 안에 마침표를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직접 인용절은 ‘원화자가 발화한 것을 직접 따온 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의 표지로서는 의심스런 문이거나 매끄럽지 못한 문을 만드는 ‘고’는 보편성이 없기에 제외한다고 보면, 대체로 ‘하고’와 ‘이라고’를 들 수 있다. 다만 그들의 활용에 변별성이 있는데, ‘이라고’는 표현된 결과를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접인용문을 강조하는 기능까지도 한다고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그런 점이 ‘이라고’가 구어에서 간접 인용에도 사용되어 문어에서 사용되는 작은따옴표 구실까지도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을 표시하는 부호는 큰따옴표(“ ”)이다. 그러나 직접인용의 대상이 문이 아닌, 이보다 작은 단위일 때에도 큰따옴표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에 이필영(1995)에서처럼 직접 인용의 대상으로서 문(절)보다 작은 단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면, 직접인용의 대상이 아닌 언어 단위의 경우에 작은따옴표의 사용도 있겠는데 이의 구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어 생활, 국어의 문어 생활에서는 직접인용절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변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 밖에 큰따옴표 안의 마침표 문제는, 국어어문규정집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최현배(1980)에서 밝힌 것처럼 마침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 2.2. 간접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간접 인용과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에 대하여도 직접 인용과 마찬가지로 일부 문법학자들이 기술한 내용 및 국어어문규정에 제시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최현배(1980)는 ‘간접 인용(間接引用)[건너 따옴]’을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따옴에 건너 따옴’으로 풀이한다. 인용 표지로서 그 풀이씨[용언]

뒤에 쓰이는 따옴 토씨[인용 조사]는 ‘고’의 조사를 든다. 최현배(1980: 889)에서 건너 따옴[間接引用]에는 인용 부호, 따옴표를 쓰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따옴표에 대해 좀더 최현배(1980)의 기술을 살펴보면, 쌍따옴표는 직접 인용 이외에도 다른 데로부터 빌어온 문자, 특별한 길로 쓰인 낱말, 특히 힘주어 주의를 돌리려는 말, 일부러 적어 보이는 사투리 따위나 책, 논문, 신문 같은 것은 제목을 보일 적에도 두루 쓰도록 한다. 다만 홑따옴표(‘ ’)는 쌍따옴표 안에서만 쓰이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과거어문 규정에는 인용표지와 인용부호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인용’을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용에는 ‘『 』’를 쓰고 ‘「 」’는 이중 인용을 나타낼 적에 쓴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낫표를 작은따옴표로 본다면, 역시 최현배의 홑따옴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0)’에서나 ‘한글 표기법(1969)’<sup>8)</sup>에서도 작은따옴표는 다른 말을 따다가 쓸 경우, 그 안에 또 다른 따옴 말이 있을 때, 그 따옴 말의 앞뒤에 갈라서 쓴다고 되어 있다. 따옴표(引用符) 즉 큰따옴표는 ‘한글 표기법’에서 역시 최현배(1980)의 쌍따옴표의 쓰임과 같이 대화(직접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니까 최현배님의 것과 동일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국어 어문 규정집(1988)’에는 큰따옴표를 ‘한글 표기법’에서와 같은 용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시 (2)에서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쓴다.”라고 하여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모를 모호한 표현을 한다. 그 예문만은 직접 인용의 말을 든다. 작은따옴표는 전의 규정들과 동일한 ‘따옴 말 가운데 다시 따옴 말이 들어 있을 때’ 이외에 ‘마음 속

8) 문교부(1969), 한글 전용 편람, 서울. 한글 전용 준비의 하나로 필요한 국어 정서법의 재조정이 이루어짐.

9) ‘인용’ 앞에 ‘(직접)’이라는 표현은 필자가 붙인 것임. 원문에는 ‘인용’으로만 되어 있으나 예시 ②에서 직접 인용한 말에 쓴다고 기술했다. 우리 아기가 어제 처음으로 “맘마”라고 하였다.

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도 쓰기로 한다. 게다가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라고 붙임을 둔다.<sup>10)</sup> 그러나 작은따옴표의 독백체 문장이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하는 변별이 요구되는데 설명이 없다. 그리고 작은따옴표의 드러냄표 구실이 특별 어구에 사용되는 큰따옴표의 구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현행 맞춤법 규정은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두 가지 사용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현실 어문 생활에 따옴표의 혼란이 극심하다. 이에 대해서는 4.2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한다.

남기심(1971)은 간접 인용문은 피인용문을 전달자(傳達者)의 입장에서 변형시켜 간접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인용문을 말한다고 한다. 인용표지로서 인용토는 ‘하고’만 쓰이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수의적으로 ‘고’로 축약되거나 아주 탈락하여 버리는 것으로 기술한다.<sup>11)</sup> 그런데 그는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각주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용토 ‘고’ 이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하고’가 쓰일 때에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이것은 아직 피인용문의 종지형이 존대중화어미<sup>12)</sup>로 바뀌어 나타나지 않았기에 직접 인용성이 있다고 보아서 큰따옴

10) 국어어문규정집(1988), p.34.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11) 남기심(1971: 227)에서 직접 인용문이 간접 인용문이 되어 간접 인용토 ‘하고’가 ‘고’로 축약되거나 탈락되는 과정의 예들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철수가 집에 있습니까?”

(ㄱ) A가 “철수는 집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ㄴ) A가 철수는 집에 있느냐하고 물었다.

(ㄷ) A가 철수는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ㄹ) A가 철수는 집에 있느냐 물었다.

(ㅁ) A가 철수는 집에 있느냐고 했다.

(ㅂ) A가 철수는 집에 있느냐 했다.

12) 상계서(P.227)에서 피인용문의 모든 계층의 상대존대를 나타내는 종지법 어미는 인용토 앞에서 존대중화 어미로 나타냄을 보여준다.

각형 존대중화어미 = 서술형 : -(는/s)다, -라(지정사와 “더” 뒤에), -마  
 의문형 : -(느)냐  
 명령형 : -라  
 청유형 : -자

표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때의 ‘하고’는 직접 인용의 ‘하고’이지 간접 인용의 ‘하고’는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다.

이필영(1995)은 간접 인용은 발화나 생각과 같이 일정한 관념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의 언어형식(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때의 관념을 나타낸 언어형식은 물리적으로 표현된(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언어형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인용절은 인용의 대상이 ‘관념’이든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든 인용화자가 원관념자 또는 원발화자의 관점을 인용화자 자신의 관점으로 옮겨서 그들을 추상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한다고 본다. 간접인용절에는 인용표지로서 ‘고’가 자연스럽게, 간접인용절 뒤에 인용표지 ‘이라고, 하고’가 나타나면 상위동사와 관계없이 어색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간접인용절이라 하더라도 종결형이 ‘-(겠)구나, -(겠)지, -(겠)는데’ 등등인 구문에서는 인용절과 상위동사 ‘하고’가 간접인용표지로 자연스럽게 쓰임을 보인다.<sup>13)</sup> 그는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인용절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여기서 ‘강조’라는 개념은 최현배(1980)에서 쌍따옴표, 큰따옴표의 용도 중 ‘특히 힘주어 주위를 돌리려는 말’이나 국어어문규정집(1988)에서 작은따옴표의 용도 중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임’ 등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간접 인용이란 남의 말을 건너 따옴인데, 피인용문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때 피인

13) 이필영(1995), p.48. 소위 인지동사 중 심리동사들의 인용절 종결어미는 ‘-겠다, -(겠)구나, -겠지, -겠는걸, -겠는데, -겠거니, -았으면, -어야지, -(으)나/ㄴ가, -(으)니까’ 등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종결어미들은 ‘-겠거니, -려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백체의 문장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백체의 문장은 본래 상대높임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용절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직접인용절인지 아니면 간접인용절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다만 인칭어의 전이여부로서 구별하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ㄱ. ?철수는 “내가 이기겠구나.”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ㄴ. 철수는 자기가 이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용문은 이필영(1995)의 주장대로 인용 대상이 ‘관념’이든 ‘구체적인 문장’이든 추상적인 문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봄이 온당하다.

간접인용표지는 국어문법가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고’의 인용표지이다. 남기심(1971)이 ‘하고’의 축약된 형태를 ‘고’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수용하기가 미상불 어렵다. 다만 간접인용절이라 하더라도 소위 상위동사가 심리동사인 경우에 인용절 종결어미[가령 ‘-(겠)구나, -겠지’ 등에 ‘하고’가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이필영(1995)의 견해는 받아들일 만하다.

다음으로 인용 부호의 문제인데, 대체로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필영(1995)에서 간접인용절에 작은따옴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 부분을 힘주어 주위를 돌려 드러내고자 할 때 곧 강조하고자 할 때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간접인용절(문)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어어문규정(1988)에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각각의 용도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작은따옴표의 예시에 제시한 독백체 문장이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모호하여 어느 경우에 작은따옴표를 써야 할지 모르게 되어 있다. 또한 큰따옴표를 사용하도록 예시한 특별 어구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도록 예시한 붙임에서 문장의 중요한 부분과 드러내보인다 즉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인용부호를 굳이 다르게 사용하는지 언어규범으로서 문제가 다분히 있다. 최현배(1980)에서는 이들을 일원화하여 큰따옴표를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사이에 혼란이 야기된다 그런 까닭에 구분하여 사용토록 함이 실용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 간접인용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문법 교과서에서 ‘인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다만 아래 제시한 이응백 외(1979:136)의 ‘인용법’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의 이야기 안에 남의 말이나 글을 옮겨와서 말하는 방법’

위의 정의를 보면 ‘남의 말이나 글을 옮겨오는 것’이 ‘인용’인 것이다. 김완진 외(1979:138)에서도 인용의 대상은 ‘주어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문법 교과서에서 ‘언어의 형식’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인용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각각의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 교과서는 소위 제1차 통일문법 검인정 시대(1966-1978)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제2차 통일문법 검인정 시대(1979-1984)의 문법 교과서 및 제1차, 제2차, 제3차 통일문법 국정 교과서 등이다. 이렇게 연구 자료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직·간접으로 국어생활에 영향을 준 문법 교과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문 규범의 문제점을 풀고, 그 준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1. 직접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거의 모든 문법 교과서에서 ‘인용’에 대한 정의를 찾아 볼 수 없다. 제1차 통일문법 교과서에는 직접 인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빈약하다.

이명권 외(1972), 이희승(1972), 이승녕(1972), 강운호(1972), 이을환(1972), 허웅(1972), 김민수 외(1972), 양주동 외(1972), 강복수 외(1972), 이인모(1972) 등은 별도의 인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문장 부호의 설명에

서 인용과 관련된 것이 있을 뿐이다. 인용 표지는 그 중에 일부 문법 교과서에만 조사 부분에서 인용과 관련된 표지, 인용 조사를 제시한다.

강윤희(1972:103), 이을환(1972:80), 이은정(1972:77), 허웅(1972:54-55)<sup>14</sup>, 최현배(1972:96-97), 이인모(1972:130) 등에서 인용의 표지로서 ‘고’와 ‘(이)라고’ 등을 부사격 조사 중 인용에 쓰이는 조사로 든다. 특히 이인모(1972)는 그 밖의 인용격 조사로 ‘하고’도 제시한다. 정인승(1972)은 ‘고’를 ‘하고’의 준말로 본다. 이들의 문법 교과서에는 어느 인용 표지가 직접 인용 표지이고 간접 인용 표지인지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인용 부호의 용법은 양주동 외(1972), 강복수 외(1972), 정인승(1972)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법 교과서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인모(1972), 최현배(1972), 허웅(1972), 이명권 외(1972) 등은 따옴표, 큰따옴표의 용법만 주로 설명한다. 그 밖의 모든 문법 교과서에서 따옴표, 큰따옴표의 용법을 설명하는데 대체로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나 글의 제목, 특별한 어구 등에 쓰도록 한다. 특히 최현배나 허웅 등은 힘주어 주위를 돌리려는 말 곧 어떠한 말이 특히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작은따옴표는 대체로 큰따옴표 속의 인용을 나타낼 때 쓴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은정(1972)은 작은따옴표를 특시부(?)로 쓰기도 한다고 하여 특별한 단어나 주위를 환기시키려는 말에 쓰임을 보이고, 허웅(1972)도 어떤 말을 눈에 띄게 할 때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 대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큰따옴표를 쓰되 대체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구별을 하지 않고 사용해도 좋게 되어 있다. 다만 최현배(1972)만이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 큰따옴표를 쓰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국어어문규정(1988)에서 작은따옴표가 드리냄표 구실을 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용도로 쓰이도록 한 일부 문법 교과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제4장에서 다루겠지만 글을 쓸 때에 큰따옴표와 작은따옴

14) 허웅님은 부사격 조사 중 문장에만 붙는 인용의 조사를 특수조사라고 하여 보조조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

표의 무분별한 사용은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최현배(1972)에는 간접 인용절에는 따옴표를 쓰지 아니한다고 하였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인용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큰따옴표든 작은따옴표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간접 인용에 큰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직접 인용과 구별이 안 된다. 굳이 작은 따옴표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면 혼란의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제2차 통일문법 검인정 교과서를 보자.

이용백 외(1979)는 직접인용법을 ‘(남이) 한 말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설명한다. 그 표지는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예시문을 보면 ‘라고’를 썼다. 그러나 그 문법 교과서에는 인용 부호에 대한 설명은 없다.

김완진 외(1979)는 직접인용문을 이미 주어진 말을 직접 인용하여 만들어진 문장으로 본다. 직접 인용문에 쓰이는 인용보조요소는 ‘-하고’와 ‘-라고’를 든다. 그는 상위동사가 대화 인용동사인 경우에 ‘-라고’와 ‘-하고’가 다 쓰이는 것으로, 혼잣말 동사인 경우에는 ‘하고’만 쓰이는 것으로 예시한다.<sup>15)</sup> 이것은 이필영(1995)의 인용문의 상위동사 중 인지동사(사유동사, 심리동사)에 해당되겠는데, 이런 부류의 동사들을 상위 동사로 하는 피인용문은 발화/발성된 결과라기보다는 그 과정으로 본 듯하다. 그래서 ‘(이)라고’를 사용하는 것을 비문으로 생각한 것 같다. 직접 인용 부호로는 ‘따옴표’(큰따옴표)를 사용하되 이것으로 대화, 인용 및 특별 어구까지도 표시하게 한다. 다만 특별 어구를 인용할 때 홑따옴표를 쓰기로 한다는 설명은 저자가 쌍따옴표, 큰따옴표의 용도를 염두에 두고 피인용문인 직접인용절(문)의 표시와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인용한 말 속의 인용을 나타낼 때 쓰는 용법을 빠뜨린

15) 김완진 외(1979), pp.139-140. 직접인용문의 경우 그 피인용문의 서법에 따라 인용동사가 제한되어 쓰인다. 평서문과 감탄문이 피인용문으로 쓰이는 경우 대화 인용동사와 혼잣말 인용동사가 서술어로 모두 쓰인다.

나는 “달도 밝구나.” [하고, 라고] 말했다.

나는 “달도 밝구나.” [하고, \*라고] 생각했다.

것은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쌍따옴표를 겹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웅(1979)은 직접 인용어를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라고'에 이끌린 말로 보는 듯하다. 왜냐하면 예시문에서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인용 부호로 따옴표(" ")를 쓰고, '조사'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을 나타냈으나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웅(1979)은 작은따옴표의 사용법도 제시하였는데 인용한 말이 겹쳐질 때 외에 어떤 말을 특히 눈에 띄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작은따옴표의 그런 용도는 이미 허웅(1972)에서 그 조짐을 보였다. 국정통일문법(1985)이나 국어어문규정(1988)에 이것의 현실성을 규정의 붙임으로나마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다.

김민수(1979)에는 인용에 관한 문법적 설명은 없다. 다만 인용 부호에 대한 것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는 따옴표는 인용 대화를 드러낼 때 사용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직접 인용에 쓰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작은따옴표는 따옴표 속에 쓰이거나 홀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작은따옴표의 역할이 모호하게 설명되었다. 홀로 쓰일 때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다.

제 1, 2차 통일 문법 국정 교과서(1985:126, 1991)에는 '직접 인용'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직접 인용 표지로 '라고'와 '하고'를 든다. 다만 '하고'를 피인용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피인용문의 역양까지 그대로 흉내내어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필영(1995)에서 밝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언어 형식이 발화/발성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하고'를 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용 부호에 관한 설명은 없으나 예시문을 통해서 보면 직접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국어어문규정집(1988)에서 규정한 작은따옴표의 용도 중 드러냄표 역할을 하기 위해 특수한 어구에 작은따옴표가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문법 교과서에 인용 부호에 대한 별도의 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법 교과서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현실 어문생활의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닌가 한다.

제3차 통일문법 국정 교과서(1996: 77)에서는 '라고'만 직접 인용절에

결합한다고 하여 직접 인용법에 대한 설명이 전보다 더욱 빈약하다. 이 문법 교과서에는 인용 부호에 대한 설명항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상으로 문법교과서들의 기술 내용 중 중요한 것들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직접인용법은 ‘남이 한 말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정의된다. 직접인용표지는 ‘라고’와 ‘하고’를 든다. 다만 ‘하고’는 특정 상황의 발화/발성의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인용부호는 직접 인용에 큰따옴표를 사용하되 특별어구에도 사용된다. 또한 어떤 말이 특히 눈에 띄게 하기 위하여 씌어진다. 작은따옴표는 대체로 큰따옴표 속에 사용되나 특별한 단어나 주위를 환기시키려는 말에 드러냄표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사용에 혼란을 준다. 이에 인용부호 용법의 혼란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큰따옴표는 직접인용절에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가 동시에 쓰일 경우에는, 가령 표제와 부제를 드러낸다가 직접인용절 속에 또 다른 인용의 말을 드러낸다가 등에서는 선·후로 나누어서 큰따옴표를 먼저하고 나중에 작은따옴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냄표로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 3.2. 간접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

앞의 절에서 제시한 제1차 통일문법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허웅(1971:54-55)은 문장에만 붙을 수 있는 특수조사(특수토씨)로 ‘-고’를 들고 이것이 인용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나 예시문을 보면 ‘-라고’처럼 직접 인용에 쓰이고 있다.

최현배(1972:96-97)는 어찌자리토로 ‘고’를 드나 인용과 관련된 설명이 없다. 인용 부호(동서:145-147)의 예시문에서 바로따옴(직접인용)에 사용되고 있다.

정인승(1972:61-62)은 인용연결법[따음이음법]에서 따온말의 마지막 용언을 뒤의 서술어에 잇는 방법에 ‘하고’의 준말 ‘고’를 붙인다고 하나 그것이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구별이 없다.

이인모(1972:130)는 인용격조사로 ‘하고·(라)고·(이)라고·고’ 등을 드나 직·간접 인용과 관련된 설명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간접 인용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 인용의 정의, 간접 인용 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학교 문법 교과서의 내용치고는 너무 영성하고 임의적인 감이 없지 않다.

제2차 통일문법 검인정 교과서의 간접 인용에 대해 살펴보자.

이용백(1974:136)은 ‘간접인용법’을 (남의) 말을 화자의 말에, 고쳐서 옮겨 놓은 것<sup>16)</sup>으로 정의한다. 간접 인용 표지는 명시하지 않으나 예시문을 보면 ‘고’가 쓰인다. 인용 부호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역시 예시문에서 보면 간접 인용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김완진 외(1979:140)은 ‘간접인용문’을 직접인용문을 전달하는 처지에서 병행시켜서 간접화법으로 표현하는 인용문이라고 정의한다. 간접 인용 표지로 인용보조요소 ‘고’<sup>17)</sup>를 든다. 예시문을 보면 간접 인용에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허웅(1979:129-130)은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예시문을 보면, 간접 인용 표지는 ‘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 인용에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일부 문법 교과서에서 제1차 통일문법 검인정 교과서에 없던 간접 인용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남의 말을 화자의 관점에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설명한다. 인용 표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인용 부호는 간접 인용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

16) 이용백(1979), p.136. 간접인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이다. 간접 인용에서는 직접 인용에 나타나는 대명사, 공손법, 날짜 등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바뀌어 지고, 마지막으로 인용 부호가 소거된다.

17) 김완진 외(1979), p.138.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고’는 접속형 어미로 본다.

통일문법 국정 교과서(1985, 1991)에는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은 없다. 간접 인용 표지로 ‘고’를 들어 간접 인용절에 사용한다고 한다. 동서(1985: 130)의 예시문을 보면 ‘고’가 붙은 간접 인용절에는 인용 부호가 쓰이지 않았다.

제3차 통일문법 국정 교과서(1996)에는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 인용 표지로 ‘고’를 든다. 예시문을 보면 간접 인용에는 인용 부호를 쓰지 않았다.

통일문법 국정 교과서를 살펴 본 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간접 인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그 인용 표지로 ‘고’가 피인용절에 붙는다는 것을 보일 뿐이다. 인용 부호는 간접 인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예시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간접 인용에 대한 내용이 제2차 통일문법 검인정에 비해 더욱 빈약하다. 이런 결과가 국어 현실에 반영되었다면, 오늘날 인용 표지 및 인용 부호의 혼란된 사용법이 만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을 다음 4장에서 확인하여 보기로 한다.

이상으로 문법교과서들의 기술 내용 중 중요한 것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간접인용법은 ‘남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화자의 말로 바꾸어 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간접인용의 표지로는 ‘고’가 사용되고, 간접인용부호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의 실용적인 문제

현실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본다. 제3장에서 규범문법으로 제시된 인용법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의 실용성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도 영성한 설명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인용의 문제점을 풀어 적절한 인용의 규범을 끌어내어 보기로 한다.

#### 4.1. 구어의 인용 표지

방송에서 주로 청취하거나 자막으로 본 구어의 인용 사례를 제시하여 본다.

- 1) 가. 눈물로 지새우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 만이라도 가 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강산에의 노래 '라구요')  
나. 어머니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 그렇게 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초대 손님의 말)(sbs, 2001.2.9 행복채널)
- 2) 가. 괜히 왔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리포터가 이민하려는 자에게)(sbs, 2001.1.27,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막)  
나. 올해 360점 이상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모 학원장의 말)(mbc, 2001.1.12, 저녁 6:45)  
다. 텔레비전에서 볼 때 잘 생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행자가 출연자에게)(kbs, 2001.1.7, 삶의 체험 현장)  
르. 부모님은요, 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모 출연배우가 한 말)(kbs, 2001.1.6, 사랑의 리퀘스트 저녁 7:10)  
미. 나는 저 사람하고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진행자의 말)(kbs, 2001.2.25, 진품 명품)  
바. 원단 재생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수해자가 물에 젖은 원단을 가리키며)(kbs, 2001.7.18, 저녁 9시 뉴스)  
사. 어머니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초대손님의 말)(kbs, 2001.2.9, 행복채널)
- 3) 가. (주인 없는 개) ..... 책임성이 따라줘야 하는데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동물협회 회원의 말)(kbs, 2001.1.30, 저녁 11시 뉴스)  
나. 굳이 이런 시즌에 해야 된다고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어느 여대생이 거리 인터뷰에서)(kbs, 2001.10.6 저녁 9시 뉴스)  
다. 이렇게 어렵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kbs, 2001.1.28, 취재파일)  
르. .... 이게 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민 예정자의 말)(sbs, 2001.1.27, 그것이 알고 싶다)  
미. .... 파손면책확인서를 받는 것은 택배회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용절의 인용방식은 간접인용이다. 따라서 '라고'가 쓰임은 자연스럽게 못하다. 거기에 '고'를 붙여야 규범적이다.

2)군의 르, 비, 스의 상위동사는 발화동사들이다. 이들에 인용된 절은 인용방식이 간접적이라고 판단된다. 르과 스의 인용절은 원화자인 부모의 말씀을 인용화자의 말로 바꾸어 인용한 것이 분명하다. 만약 직접인용이라면 '딸'은 '너'로 '-다'는 '-야', '-어' 등으로 쓰였을 것이다. 따라서 인용표지는 '라고'보다는 '고'로 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구어에서 간접인용에 '고'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규범적인데 왜 굳이 '라고'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이 잘못되어 그 결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나 인용화자가 인용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가령 2)의 ㄷ의 인용절 '잘 생겼다'는 진행자가 과거에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을 회상하여 나타낸 현출연자의 모습에 대한 추상적 문장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 인용의 절은 혼잣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의 인용표지가 붙어야 하는데 인용화자는 굳이 '라고'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오용이라기보다 인용절을 드러내기 위해서 곧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라고'의 이런 기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2)의 ㄷ이 있다. 이 문장에 쓰인 '요'는 선행어를 힘주어 말하기 위해 쓰였다.<sup>20)</sup> 따라서 화자는 부모님의 말을 간접인용한 절에 '라고'를 붙임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어 강조한 것이다. '라고'의 이와 같은 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하게 과급되는 것 같다.

다음 4장 2절에서 문어의 인용부호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아마도 간접인용에서 작은따옴표가 하는 구실을 구어에서 그 '라고'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3)군의 문들의 내포절들은 특정한 문맥을 상정할 수 없는 추상적 문장들로서 인용절로 보이는 것들이다. 사실 인용절은 어느 누구의 말(언어형식)을 인용한 문이기 때문에 인용화자의 생각이 인용 대상이 될 수

20) 정인승(1972), p.107. '요'가 높임' 외에 '힘춤'의 기능이 있음을 밝힌다.

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인용화자의 혼잣말, 독백이 인용되는 경우는 문법학자들이 다루었다. 그런데 문제는 언중이 자기의 생각을 내적인 언어형식으로 나타낸 것조차 유추하여 직접인용의 표지로 쓰이는 ‘라고’나 ‘라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3)의 ㄴ에서는 소위 부사격조사 ‘구(고)’로 충분한데 이것에 ‘라고’를 더 붙여 자기의 생각 곧 인용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3)의 ㄷ에서는 ‘..... 아니다 라는’이 ‘.....아 니라는’<sup>21)</sup>으로 바뀌어야 바른 표현이다. 그런데 그 ‘라는’이 ‘라고 하는’의 준 말로서 직접인용의 표지로 쓰이는 ‘라(라고)’를 내포절에 붙여 직접 인용절을 이끄는 것처럼 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의 ㄷ인 경우 ‘-다라고는’은 ‘-다고는’으로, 4)의 ㄴ의 경우 ‘-다라는’은 ‘-다는’으로 표현해야 바르다. 4)군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라고’의 ‘라’를 넣어 직접인용표지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절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4)군의 문장에 쓰인 ‘라-’도 3)군의 ‘라고’의 ‘라-’와 용도가 다르지 않다. 4)의 ㄱ은 ‘-다라기’를 ‘-다기’로, ㄴ은 ‘-다라든가’를 ‘-다든가’로 함이 올바른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직접 인용의 표지를 끌어다가 사용하려는 것은 구어에서도 문어의 인용부호인 따옴표 구실 곧 드러냄이나 주위를 환기시킴을 위한 화자(언중)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 4.2. 문어의 인용표지 및 인용부호

여기에서는 주로 신문기사에 쓰인 인용표지 및 인용부호들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다음 1)군의 문장들에서는 인용표지를, 2)군의 문장들에서는 피인용절 어미와 국어교과서의 인용표지 및 인용부호를, 3)군의 문장들에서는 인용부호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라는’은 ‘-라고 하는’이 준 말이다. 이 ‘-라’는 ‘이다, 아니다’의 활용어미이고 ‘고’는 인용의 표지로 부사격조사로 본다.

- 1) 가.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던 한 학생이 나를 보고 ‘저 선생님 미친 선생님이야’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문화일보, 2001.2.21)
  - 나. 강씨는 어머니에게 술을 올리면서 “어머니 진갑상을 통일되는 날 꼭 모시겠다”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문화일보, 2000.12.2)
  - 다. 1998년 그가 출판한 회고록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그는 “기업을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을 만났지만 존경할 만한 이를 만난 기억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문화일보, 2001.3.22)
  - 리. 김씨는 ..... “북의 안내원이 ‘9월 평안북도의 아들 강씨집을 찾아 갔을 때 낯선 사람 3,4명을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동진호 선원들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동아일보, 2000.12.4)
  - 미. 하루 일과를 끝내고 취침할 때면 “그래 오길 잘 했어. 떳떳하잖아”라고 혼잣말로 되뇌곤 하는 이이병.(동아일보, 2000.12.8)
  - 비. 1998년 그가 출판한 회고록 ‘이땅에 태어나서’에서 .....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기업이 할 일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문화일보, 2001.3.22)
  - 시. 이봉주는 .....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 박수를 받았다.(동아일보, 2001.4.21)
  - 오. 이에 대해 이공대학생회장은 “이공대 선거가 늦어진데다가 이공대가 농활을 수행함에 있어 ..... 행사들과 맞물려 농활 대원을 꾸리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모 대학신문 제348호, 2001.5.16)
- 2) 가. .... 그래도 의료 대란은 지난해 10월의 의료계 파업이 ‘끝이었겠지’라는 게 시민의 생각이었다.(동아일보, 2001.2.24)
  - 나. 김할머니는 남쪽의 가족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남쪽일은)이제 꿈에서라도 다 잊어버려. 아무 문제없다”라며 아들을 향한 진한 모정을 전했다.(문화일보, 2000.12.2)
  - 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장총재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인의 명예도 있어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문제가 잠잠해진 뒤 수습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해 장총재의 교체를 시사했다.(문화일보, 2000.12.1)

- 르. ....000 목사가 ..... “그 분들은 뭔가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서명한 것이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끈다.(동아일보, 2001.8.4)
- 로. 000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공안당국의 ..... 방북승인 반대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었다.(조선일보, 2001.8.30)
- 리. 그 아이는 “나는 프로는 아니다”고 했다.(동아일보, 2001.1.26)
- 리. 이 관계자는 ‘조만간 남북비공식 군사접촉을 통해 북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경의선 공사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1.5.10 인터넷)
- 로. 한 미술 교사가 미술 시간에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그리거나 만들고, 또한 어디에 설치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 학생들은 ‘그림은 하얀 종이 위에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저 푸른 하늘에다 또는 운동장에다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라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중학교 1-1 생활국어, p.15)
- 3) 가. 특히 친구에게 아픈 과거를 털어놓은 뒤 “정말 고맙다. 난 사람이 필요했어. 아무도 내 진실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하고 말하는 대단원에선 어김없이 10대 관객들 사이에 눈물 바람이 돈다.(동아일보, 2001.1.26)
- 나. 이 관계자는 이어 ..... “증권사 등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재경위 통과 즉시 시판될 수 있다”고 밝혔다.(내외경제, 2000.12.1)
- 다. 김씨는 “국정원이 사과문 작성 요구와 함께 앞으로는 황선생과 내가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동지회 간부들도 국정원에서 선정해 주는 사람만 쓰도록 요구했다”고 측근에게 밝혔다. 중앙일보가 1일자로 보도했다.(문화일보, 2001.4.22)
- 로. 安법무 ‘충성’ 문건 말 맞추기  
 여직원 “장관이 초안” 주장하다  
 하루만에 “변호사가 쓴 것” 번복(조선일보, 2001.5.23 인터넷)



1)의 ㅅ, ㅇ 등과 2)의 ㅇ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다. 1)의 ㅅ, ㅇ 등과 2)의 ㄴ, ㅇ 등은 인용절이 간접적으로 인용된 것인데도 직접인용처럼 인용표지 ‘라고’를 사용했다. 그들 피인용절의 어미가 중화되어 나타난 것은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문어에서의 이런 현상은 구어에서의 ‘라고’와 같은 현상으로 파악되는 바, 인용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문어에서는 작은따옴표가 있음으로 오용 외에 달리 생각할 여지는 없다.

또한 간접인용에서는 인용절의 어미가 중화되는 것 외에 ‘-이다’나 ‘아니다’는 전통어법상 ‘-이라’나 ‘아니라’로 바뀌어 인용표지 ‘고’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여 어감이 고르고 부드럽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최근의 국어 현상 중의 하나이다<sup>22)</sup>

2)의 ㄷ, ㄹ, ㅁ, ㅂ, ㅇ 등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들의 인용절은 모두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아마도 인용절의 어미가 간접인용에서는 상대경어법이 중화되는 일반적 현상을 유추하여 그런 오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의 ㄷ은 동일문장 안에서 ‘-이다’가 ‘-이라’로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한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또한 2)의 ㅅ도 같은 오용사례이다. 여기서 한 문장 안에 인용절이 두 개 들어 있는데, “ ‘...않는다’고”와는 달리 “ ‘...예정이다’면서”는 ‘...예정이라면서’로 고쳐야 바른 문장이다.

그 밖에 2)의 ㄱ과 ㅇ 등에서는 간접인용표지에 쓰이는 ‘하는’을 ‘라는’으로 바꿔 사용하였다. ㄱ에서 원화자의 혼잣말은 간접적으로 인용한 경우이므로 ‘라는’이 ‘하는’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ㅇ에서도 ‘저 프른 ..... 없을까?’가 직접인용된 절이 아니다. 그런데 직접인용으로 처리하여 ‘라는’을 붙였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인용절 ‘학생들은 ..... 그려면 하는 것이다.’라는 간접인용이므로 그 절의 어미 ‘-이다’를 ‘-이라’로 바꾸고 ‘라는’ 대신에 ‘는’을 붙여야 어법에 맞는데, 뒤의 인용절이 갑자기 직접 인용절이 될 수는 없다. 직접인용절이 된다면 전후 문장이 호응이 되지

22) 국어문자의 표음성을 무시한 표기이다. 기본형을 살려 표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규범에 벗어난다.

않기 때문이다. 첫째 인용절이 간접인용인 것은 물론이다. 인용절의 어말어미가 중화되었는데도 직접인용절로 처리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 다. 이런 현상은 어문교육이 잘못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용화자의 관점이 흔들리는 주된 이유는 다음 2)의 ㄴ에서 더욱 분명하다. ㉠의 원화자 '김할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을 인용화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시에 인용하여 이 인용절에 인용표지로 '라며'를 붙여 직접인용절로 처리한다. 이 인용이 바르게 되려면 인용절의 문장어미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피인용절의 앞문장의 어말어미가 '-어'이면 뒷문장의 그것의 어미도 '-어'가 되어야 하는데 중화된 어미 '-다'를 썼다. 만약 간접인용으로 하려면 첫문장의 어미 '-어'를 '-어라'로 중화시켜 뒷문장의 어미 '-다'와 호응이 되게 한 다음에 '라며'를 '며'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인용부호의 사용은 첫째 목적이 직접인용이나 간접인용이나를 구별하여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이 어떤 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마도 이 두가지가 인용부호의 주요 기능일 터이다. 이것이 2장과 3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용부호의 일반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3)의 ㄱ과 ㄴ에 쓰인 인용부호로는 직접인용절과 간접인용절을 식별할 수 없다. 두 인용절이 화법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큰따옴표를 하였다. 굳이 간접인용절에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싶다면 작은따옴표로 함이 온당한 표기일 것이다. 더러는 이처럼 구분하여 표기한 사례를 2)의 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요사이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 것이다. 3)의 ㄷ은 인용절이 간접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칭대명사가 전환이 안 되었다. 간접인용에서는 일인칭대명사 '내'는 '자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접인용절을 드러내려 한다면 직접인용과 구별되게 작은따옴표를 써야 온당하다. 3)의 ㄹ에서 큰따옴표로 드러낸 신문기사의 표제 안의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따옴표를 쓴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3)의 ㄴ은 신문기사의 소표제에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표제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ㄹ처럼 큰따

옴표를 사용함이 마땅하나 표제내의 부분적인 어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함이 인용부호의 개념에도 맞는다. 가령 3)의 시이나 ○ 등에서 사용된 작은따옴표는 적절한 표기이다. 그러나 3)의 비에서 상위 표제는 ㄱ처럼 온당한 표기인데 부체에 쓰인 큰따옴표는 표제의 위계성으로 보아 작은따옴표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인용부호에 대하여 살펴본 바로는 인용부호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에 구별된 표기가 요구된다. 또한 피인용절 속의 강조 구절도 구별되게 인용부호를 써야 한다. 그 밖에 표제와 표제 속의 구절을 드러낼 때나 표제와 부체를 드러낼 때에도 역시 구별된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 5. 맺음말

국어에서 인용표지와 인용부호의 용법이 혼란스러운 것이 어제 오늘의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규범적으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인용표지와 인용부호가 변별성 있게 실용적으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구어에서 첫째, ‘라고’와 ‘하고’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인용에 쓰이는 ‘라고’가 간접인용에 사용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바, 세대간의 격차는 다소간 있을지 몰라도 실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어법의 단순화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라고’는 문어의 인용부호(대체로 작은따옴표)처럼 드러냄표 구실을 하여 선행하는 구절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어에서 첫째, 구어에서처럼 ‘라고’와 ‘하고’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인용에 사용되는 인용표지 ‘고’를 대신해서 ‘라고’를 쓰는 경향이 있다. 구어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는 하여도 문어에서까지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식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셋째, 직접인용부호(큰따옴표) 속의

피인용문에 대체로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원화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므로 피인용문에는 마침표를 반드시 사용해서 직접 인용된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직접인용의 문장은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다. 넷째, 직접인용부호인 큰따옴표가 작은따옴표와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의 문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제 문제는 인용법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인식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직접인용이든 간접인용이든 이들 정의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말의 구어와 문어에서 인용표지와 인용부호에 대한 위와 같은 제 문제들이 해결되면 실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국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복수 외(1972), 인문고 문법, 형설출판사.  
강운호(1972), 정수문법, 지림출판사.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_\_\_\_\_ (1979), 인문고 문법, 어문각.  
김민수 외(1972), 인문고 표준문법, 어문각.  
김수태(1990), “인용표현의 범주 설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27집,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김완진 외(1979), 인문고 문법, 박영사.  
남기심(1970),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제12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_\_\_\_\_ (1971), “인용문의 체언형 및 관형사형 되기에 관한 연구”, 동서문화 제4집, 계명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이명권 외(1972), 인문고 문법, 삼화 출판사.

- 이상복(1974),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언어문화 말 제1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승녕(1972), 인문고 문법, 을유문화사.
- 이을환(1972), 인문고 최신 문법, 양문사.
- 이인모(1972), 인문고 새문법, 영문사.
- 이은정(1972), 인문고 우리 문법, 문천사.
- 이용백 외(1979), 인문고 문법, 보진재.
-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희승(1972), 인문고 새문법, 일조각.
- 양주동 외(1972), 인문고 새문법, 대동문화사.
- 정인승(1972), 인문고 표준 문법, 계몽사.
- 최현배(1972), 새로운 말본, 정음사.
- \_\_\_\_\_ (1980), 『우리 말본』, 정음사.
- 허 응(1972), 표준 문법, 신구문화사.
- \_\_\_\_\_ (1979), 인문고 문법, 과학사.
- \_\_\_\_\_ (1980), 『국어학』, 샘문화사.
- \_\_\_\_\_ (1975), 『우리 옛 말본』, 샘문화사.
- 교육부(1985), 고등학교 문법,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_\_\_\_\_ (1991), 고등학교 문법,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_\_\_\_\_ (1988), 『국어어문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6),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문교부(1969), 한글 전용 편람, 서울.
- 김민수 외(1991),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 이희승(1977),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초록>

##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의 실용적인 문제

서 덕 현

현재 국어의 구어(口語)와 문어(文語)에서 인용 표지와 인용 부호가, 규범적인 면에서 볼 때에, 분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인용은 그 표현 대상이 내적으로 표현된 것이든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든 '말(언어 형식)'을 끌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인용 화자는 피인용문(인용되는 말)이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인지 하는 관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인용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구어(口語)에서

1) 인용 표지 '라고'와 '하고'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2) 직접 인용에 쓰이는 '라고'가 간접 인용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라고'는 문어에 사용되는 인용 부호(작은따옴표)처럼 드러냄표 구실을 하여 선행하는 인용 구절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문어(文語)에서

1) 구어에서처럼 인용 표지 '라고'와 '하고'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2) 간접 인용에 사용되는 인용 표지 '고'를 대신해서 '라고'를 쓰는 경향이 있다. 구어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문어에서까지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식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3) 직접 인용 부호 속의 피인용문에 대체로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직접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가 작은따옴표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제 문제는 인용법(직접 인용법, 간접 인용법)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인식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말의 인용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실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국어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핵심어】** 인용(법), 직접인용(법), 간접인용(법), 인용표지(직접인용표지, 간접인용표지), 인용부호(큰따옴표, 작은따옴표)

<Abstract>

## The Practical Problems in Quotation Postposition and Quotation Mark

Seo, Duk - hyun

In a normative aspect of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the quotation postpositions and the quotation marks are used without discrimination in both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The Quotation is to draw a linguistic form whether its object is to be expressed to an inner state or an outer. There is, however, a tendency that the speakers, who use the quotation, do not show it clearly whether the quoted sentence is a direct narration or a indirect one.

The problems, being related to the Korean quotation usage, are pointed out as follows:

In spoken language

1)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usage of '라고' and '하고', the quotation postpositions.

2) There is a tendency that '라고' - using in direct quotation - is used at indirect quotation. '라고' has a function to stress prior quoted phrase as like the small quotation mark - being used at written language.

In written language

1)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usage of ‘라고’ and ‘하고’, the quotation postpositions as the same case of spoken language.

2) There is a tendency that ‘고’, which is a quotation postposition being used in the indirect quotation, is replaced by ‘라고’. If the above tendency is admitted in written language, the discernment between a direct quotation and an indirect will be ambiguous, though there is a tendency to use the above case in spoken language.

3)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period has not been put in the quoted sentence within a direct quotation mark.

4) The large quotation mark, which is the direct quotation mark, is used without making a distinction from the small quotation mark.

In my thoughts, the above problems are caused from the ambiguous understanding on the definition of quotation usage (direct and indirect quotation usage).

When these problems in the quotation usage of Korean language are settled, more effective use of Korean language will be realized in practical aspect.

**【Key words】** quotation usage(direct quotation, indirect quotation), quotation postposition(direct quotation postposition, indirect quotation postposition), quotation mark(large quotation mark, small quotation)